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와 입법부 지도자들은 뉴욕을 장애재향군인 자영업자에 대한 공공지원부문에서 국가적 리더가 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기준의 2배인 6%에 달하는 뉴욕의 새로운 공공지원예산

Andrew M. Cuomo 주지사, 집권당 상원 공동대표 Dean Skelos와 Jeff Klein 및 국회 의장 Sheldon Silver 는 오늘 장애재향군인 소유의 소규모 기업들이 공공복지지원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하여 6%를 배정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음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비해, 재향군인 소유 기업에 대한 복지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목표는3%에 지나지 않으며, 단언컨대 연방의 어느 주도 추가경정예산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총무부에 장애 재향군인 개발부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해당 부서는 재향군인들이 보다 공정하게 국가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주 정부기관을 독려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 주가 참전 용사를 예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례없는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New York시가 장애재향군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우리 용감한 군/여군 장병들의 희생을 감사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뉴욕이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법안을 발효시키기 위해 도움을 준 정당 지도부에 감사합니다.

상원 공동대표 Dean G. Skelos 는, "뉴욕의 진정한 영웅들인 장애재향군인들을 기리며, 이들에게 국가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원에서 연이어 3년간 승인을 받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합의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Ball 상원의원이 전면에 나서 기울인 노력과 재향군인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온 것에 대해 감사하며, 또한 중요한 이슈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 주지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원 공동 대표 Jeff Klein은 "전투에서 귀향하는 새로운 재향군인 세대들과 함께, 우리는 이 영웅과 그 가족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향군인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기업가 정신을 갖추도록 해서, 그들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난해, 뉴욕 상원의 독립민주회의(IDC)는 최초로 "영웅을 위한 직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소개했으며, 올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국회 의장 Sheldon Silver는 "우리의 재향군인은 감히 재단하기 어려운 애국심으로 희생을 감내했으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재향군인들이 민간인으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합니다. 재향 군인 계약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며, 존경 받아 마땅하며 이타적인 이들 재향군인이 뉴욕에서 지속 가능한 진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 단계 진보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Greg Ball은 "뉴요커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참전 용사와 상이용사들에게 미국의 약속을 지켰다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전체 참전 용사에 대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재향군인 자영업자들은 수억달러에 달하는 국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것입니다.. 이 하나의 행위는 우리가 실행하거나 앞으로 실행할 그 어떤 정책보다 재향군인의 높은 실업률을 타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이러한 뜻깊은 고용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재향군인 자살을 방지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고,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지원을 해준 주지사Cuomo씨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웅에 대한 그의 약속을 지켜낸 Cuomo 주지사는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유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향 군인들은 우리가 직장에서 필요한 바로 그 기술들을 갖추고 있고, 회의실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그토록 지킬 수 있게 한 이들의 자질은 기업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문에서 있어 그들이 특출나게 여겨 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얻어낸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는 정치는 접어두고 오로지 옳은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선량한 사람이 달성 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브라보! 모두에게, 브라보!"

하원 의원 Felix Ortiz는 "재향군인 계약에 관한 정책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계획이며, 이는 우리주의 재향군인들이 뉴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벌이가 될만 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재향군인들이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들중 가장 첫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이 용감한 장병들에게, 이러한 상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탐색을 돕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년, 뉴욕 시민의 복지를 위해 주정부는 수억달러를 상품과 서비스 지출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재향군인이 국가를 위해 행한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또 그들이 경제생활에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자신의 행정부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참전용사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의 "경력별 모집(Experience Counts)" 사업은 참전용사들의 군사 기술과 경험을 고용 기회로 바꾸고, 주지사가 약속한 7,400만달러의 세금공제는 고용주들이 현재 실직상태인 뉴욕의 9.11 테러 이후의 참전용사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은 약 900,000명의 재향군인의 고향이며, 그들 중 72%는 전쟁기간 중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